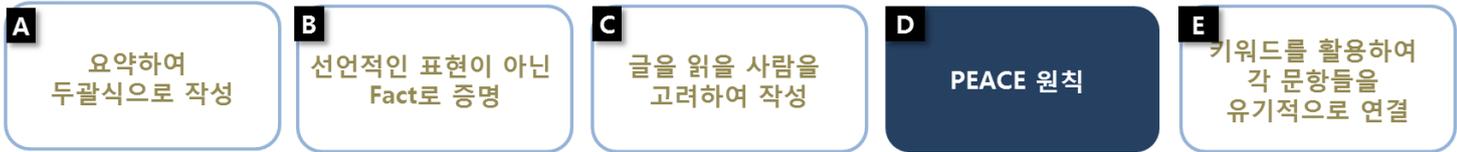


약점 없는 자기소개서 작성의 ABC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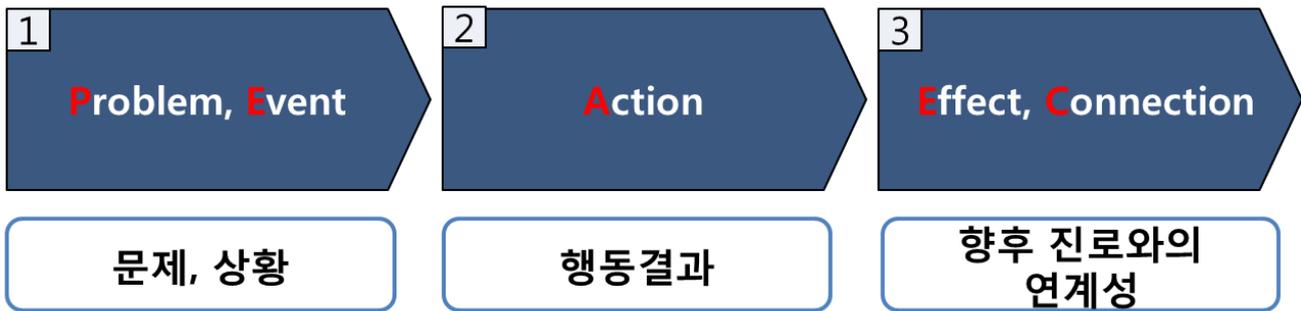
수 백, 수 천 장의 자기소개서를 짧은 시간 내에 읽어내야 하는 교수님들은 모든 자기소개서를 꼼꼼하게 읽어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약대 수험생은 모든 내용을 간결하고 담백하게 써야 하며, 명확하고 차별화된 의미 전달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저희는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 바바라 민토의 'Logical Thinking'에서 제시한 방법과 이에 덧붙인 저희만의 노하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ABCDE! 즉, 5가지가 있습니다.



[D. PEACE 원칙]

PE/A/CE 원칙



이 중 많은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connection 입니다. 내가 제시한 이 장점, 스펙이 성공적인 약대 생활, 약사로서의 향후 활동 등에 어떤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이는 나를 왜 뽑아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과 같지요. 예를 통해 PEACE 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P, E]

저는 세포 내 물질 간 상호작용이 흥미로웠습니다. 뒤섞여 있는 DNA 와 단백질이 도체게 어떤 방식으로 서로를 인식해 반응하는 것일까요? 저는 학부과정 중 이 궁금증을 풀어보려 노력했습니다.

[A]

먼저 세 학기의 실험수업을 통해 기본적인 실험을 익혔습니다. 그 후 세 학기의 연구참여를 통해 세포 내 물질간 상호작용을 연구하였스빈다. 먼저 바이오인포매틱스 연구실에서는 한국 과학 창의재단에서 800만원을 지원받아 세포분화에 중요한 호메오 도메인 단백질들의 DNA 결합 부위와 mRNA 발현을 분석해 이들이 조절하는 유전자들을 분석했습니다. 지금은 신호 전달 연구실에서 바이오인포매틱스 기법과 실제 스크리닝을 이용해 PH

도메인이 생체내에서 스위치로 작용하는 Rho 단백질을 off 시키는 GAP 으로서의 역할이 있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CE]

세포 내 물질 간 상호작용은 약학 연구에도 중요합니다. 현재 개발된 여러 약들이 세포 내신호전달 요소들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며 효과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약들 간의 조합, 약과 음식의 조합을 통해 정성적으로 어떤 결과를 일으키는지에 대하여 국소적으로만 결과가 모아져 있을 뿐 '정량적 원리'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껏 배운 생명과학의 지식과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약학을 접목, 응용한 연구를 하여 약들 간, 또 약과 식품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이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지 넓게 설명할 수 있는 원리를 발견하고 싶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해 더욱 과학적이고 안전한 복약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